

UNICEF란?

~Tomorrow Must Be Better~

<국립보건원 훈련부교수실> 이 성 전

1949년 Christmas 바로 직전 Jitka Samkora 라고 부르는 7세 난 Czechoslovakia 소녀는 Maypole 에 모여 유희하는 순진한 어린이들의 그림을 그렸다. 이 소녀는 UNICEF (United National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에서 무료로 주는 우유를 받으며 학교에 다녔는데 담임선생은 UNICEF 에서 어린이들의 그림을 모집하는 것을 알고 UN본부에 이 그림을 보냈다.

Mrs Nora Edmunds 는 UNICEF 에서 가난한 어린이를 위한 모금에 쓸 Christmas card 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판매한 결과 100개국에 넘는 나라에서 두려 800 장이나 팔려 이것을 계기로 4,800 만 장의 각종 card가 팔렸다. 이 card 의 그림은 20세기에 가장 이름난 미술가 Matisse, Chagabl, Picasso, Dufy, Dali 의 여러 사람들이 무료로 그린 그림인데 모금 방법 중의 하나로

Christmas card 판매하는 뜻은 UNICEF 의 人道的인 자발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0장이 든 1.25 dollar 짜리 한 상자는 Trachoma를 앓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5명분의 항생제를 사거나 아니면 50명분의 우유 일주일 분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UN에서 UNICEF를 20년 전에 Europe에서 전쟁에 피해 당한 어린이에게 의식을 해결하는 응급기관으로 창설한 것이다.

그후 몇몇 나라가 UNICEF의 폐지를 제외하자 다른 나라에서는 본연히 항의하였고 「아프리카」의 어느 UN 대표단원은 총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보다 다른 나라의 어린이를 더 사랑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수백만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영양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웨쳤었다. 이리하여 UNICEF의 활동은 연장되었고 UNICEF에 지원을 청하는

호소가 세계 각처에서 쏟아져 나왔다.

Mexico에서는 1,000명의 어린이들이 해마다 Malaria로 죽어가고 있어서 이것을 박멸키 위해 UNICEF는 분무기와 아울러 100 dollar 값어치의 D.D.T.를 제공해서 현 Mexico에서는 UNICEF와 W.H.O.와의 協助하에 Malaria가 거의 박멸됐다.

이와 같은 事實은 Yaw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더운 지방에 만연되는 이 질병은 10~15일 간에 단 한번 penicillin 주사로 치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UNICEF의 조력으로 4,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UNICEF에서는 나일강 유역의 전 인구 중의 90%가 장(腸) 질환을 일으키는 bilharziassiss 혹은 snail fever를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시급히 필요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건물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의사가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일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에집트」 정부에서는 병역과 internship 대신에 보전소에 근무토록 젊은 醫大卒業生을 징집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60%나 그런 곳에 가서 근무할 것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치 못했다. 그러나 보전소에는 의사와 藥이 충분치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출산률에 의사만치



〈UNICEF 마크〉

나 조산원이 있어야 해서 UNICEF는 전세계적으로 조산원 훈련소를 두어 오늘 날까지 135,000명을 훈련시켰는데 이들은 익숙해져서 등불없는 한밤에도 추적으로 분만할 수 있고 미각으로는 약품을 감별하는 정도였다. 훈련을 수료하면 수료자에 aluminum 분만가방을 주고 어떤 곳에는 필요에 따라 motorbikes도 준다.

어느 곳에서나 UNICEF는 다양색으로 일을 하고 있다. 곳곳마다 급수위생시설도 해주고 비료 사용을 시범하는 채소밭, 그리고 목공일까지 다양으로 가르치는 직업학교도 있다. 또 우유소독을 위한 우유공장을 220개나 장만하고 현재 2,750,000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매일 우유급식을 받고 있다. 지금도 UNICEF의 활약은 광범위하지만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119개국에서 도움을 신청한 것만도 500 종류가 넘는다.

이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세계인구의 증가에 비례해서 일을 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후진국에서는 800

만명의 어린이 중에 500만명이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민간단체들이 이 UNICEF의 사업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 미국위원회는 Trick-or-Treat라는 하나의 사업에서 연간 2,500,000 dollar 가 넘는 돈을 구금을 했는데 이것은 Halloween 축제일에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주일학교 어린이가 모은 17 dollar 를 어느 Philadelphia 교회가 보낸 데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학교와 교회를 대표해서 전 미국의 350萬 어린이가 해마다 Halloween 축제일에 기금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Canada에서 채택되고 있다. UNICEF의 보급창고가 있는 Copenhagen에서는 UNICEF 보급물품을 포장하는데 쓰려고 낚은 신문지를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가고 영국 Ireland, Australia. 그 외 여러 나라에서도 UNICEF를 위한 모금운동을 따로 하고 있다. 이런 일은 단순한 모금에만 그치지 않고 1,500,000 dollar나 모금하고 젊은 세대에게 異國人을 사랑해 주는 정신도 길러주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이 일을 돕고 있는데 「뉴욕」주 「유니온 테일」의 어느 양 노원에서는 수백의 남녀들이 card를 포장하는데 이것은 120,000명의 어린이가 Yaws 치료받고 30萬명 분의 결핵예방약을 사고 1,500,000명의 우유를 줄 수 있는 돈을 절약케 했다.

많은 여러 나라에서도 UNICEF 위원사단법인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잘 받아 들여 영국사람은 Malaysia에 모자보건을 위해 돈을 내고 Netherlands는 Colombia에다 농업학교도 세웠다. 서독은 Tunisia에다 직업학교를 위해 돈을 냈는데 이 모든 것은 국민유대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UNICEF 직원들은 느끼고 있다.

1965년에 UNICEF는 Nobel 평화상을 탔다. UNICEF 총장인 Laboussse는 “우리는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유용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자라는 기회를 주므로서 UNICEF는 세계의 긴장과 앞날에 전쟁의 씨를 제거하는데 공헌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세상사람들도 그와 동감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活動 :

1) 1948년에 Marcel Junod 박사가 來韓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1949년 6월에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원조로서 對韓援助事業이 始作됐다.

2) 基本協定 : 1950년 3월 25일 기본협정이 서명되어 1951년 4월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얻어 條約 第8號로 發効.

3) 긴급구호 : 한국동란이 시작된 후 1957년 한국 사무실이 철수될 기간 긴급구호용으로 兒童 및 일산부 등을 위시해서 衣類等 총 2,207,800 弗을 원조했음.

1959년 사타颱風 이재민 구호용으로 담요 57,000장(150,110 弗)을 원

조.

1963년 「코페라」發生時 1,000,000 cc의 와끄젠 (4,762볼)원조.

4) 長期事業: 1963년 10월 Mr. Alan E. McBain은 UNICEF 본부로 부터 주한대표로 赴任하드로서 한국 사무실이 再開되었으며 同氏의 來韓을 前後하여 長期的 원조사업이 始作되었다.

WHO의 기술적 협조를 얻어 현재까지의 원조상황은 다음과 같다.

(1) 保健要員訓練 및 地方醫政強化事業

UNICEF: FEP-871事業

(UNICEF 사업분류기호)

Korea 15 및 25事業

WHO: (WHO 사업분류기호)

保健院에서 실시하고 있는 保健要員訓練을 爲하여 훈련생 手當, 講師料, 訓練器材, 車輛等を 支援하였고 보건시범도를 위시하여 보건소장비 補強 藥品 및 위생기재 공급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상황은 아래와 같다.

1962년 12월 理事會 189,500弗

1964년 1월 " 142,000弗

1965년 6월 " 125,000弗

1969년 6월 " 150,000弗

(1) 結核管理事業

UNICEF: FEP-872事業

(UNICEF사업분류기호)

WHO: Korea 19事業

(WHO 사업분류기호)

B.C.G. 접종사업을 위하여 와끄젠

器材, 車輛等を 지원해왔고 치료사업을 위하여 약품을 공급하고 결핵 검사소 장비를 원조하며 요원 재 훈련등을 지원했는데 원조금액은 아래와 같다.

1962년 12월 理事會 126,200弗

1963년 6월 " 105,000弗

1964년 1월 " 165,000弗

1965년 6월 " 76,000弗

1966년 5월 " 221,000弗

(3) 癲病管理事業

UNICEF: FEP-873事業

(UNICEF 사업분류기호)

WHO: Korea 4 事業

(WHO 사업분류기호)

약품 기재 및 차량지원 등으로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금액이 承認했다.

1962년 12월 理事會 11,500弗

1964년 1월 " 29,000弗

1965년 6월 " 18,000弗

(4) D.P.T. 와끄젠生産事業

UNICET: FEP-874事業

(UNICEF 사업분류기호)

WHO: Korea 23F 事業

(WHO 사업분류기호)

D.P.T. 와끄젠 증산을 위하여 다음의 금액이 승인되어 원료 및 기구가 지원되었음.

1962년 6월 理事會 35,000弗

(5) 社會事業

UNICEF: FEP-877事業

3個年 사업으로 사회사업 지도자

훈련원에 對한 훈련사업에 따른 훈련생수당 강사로 훈련기재 차량등을 지원하게 되어 사회복지사업의 다른 분야에도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1966년 5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원조지원액은 3년간에 83,000弗이고 1967년 사업승인액은

1966년 5월 이사회 24,000弗

(6) 海外파견 훈련사업

현재까지 UNICEF 자금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은 人員은 다음과 같다,

a. 印度 칼카타 파견보건의료원훈련 (C.P.H.N. course)

1961/62년 10個月간 3人
 1963/64년 " 1人
 1964/65년 " 1人
 1965/66년 " 2人
 1966/67년 " 2人

b. London/Ibadan 應用영양훈련 (applied nutrition course)

1964년 8個月 1人
 1965년 " 1人
 1966년 " 2人

c. London 高等영양학훈련 (advanced nutrition diploma course)

1965/66년 12個月 1人

d. London/Bombay 小兒科學교수 훈련 (senior pediatrics teachers training course)

1965년 12個月 1人

1967년 12個月 1人

c. 국가개발계획에 있어서 청소년에 관한 아시아회의 1966년 3월에 태국수도 방콕에서 개최된 상기회의에 UNICEF 자금으로 정부 대표 3인이 참석하였음.

(7) 輸送料 : 上記에서 기술된 원조금액 외에 원조물자의 해상輸送料와 약간의 항공輸送料로써 1965년 末까지 3,207,710弗이 使用되었다.

(8) 將次事業展望 : 보건사업분야에 對한 1967년 6월 개최 이사회에 제출될 요청액은 과거의 연간 「레벨」을 倍加할 것으로 期待되며 앞으로 요원훈련, 결핵사업, 모자보건 사업, 위생사업에 對한 원조는 계속될 것으로 豫상된다.

사회사업에 대하여는 3년계획이 추진될 것이며 사업확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上記事業 외 응용영양사업 (농림부소관), 學敎育사업 (문교부소관)이 1967년 6월 이사회에 上程되게 되어 있고 其他 실업敎育사업이 1968년 理事會에 提出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1) UNICEF에 對한 한국정부의 寄與; 한국정부는 UNICEF 재원에 다음과 같은 기여금을 제공해 왔다.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3,500	\$3,500	\$5,000	\$30,000
1965년	1966년	1967년 決定分	
\$30,000	\$30,000	\$50,000	